

# 순천시, 소아의료체계 강화...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지정 공백 해소 여성아동병원 협력 이송시스템 마련 적기 치료 행·재정적 지원 지속 확대

순천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해 내년에도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나선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소아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전남 동부권 소아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 병원'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이다.

현재 순천시에는 현대여성아동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 등 2개소가 지정돼 1일 평균 이용객 54명, 휴일은 232명으로 2024년 총 4만2000여명이 진료 혜택을 누렸다.

이 중 33%는 인근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보성에서 발길이 이어지면서 '소아과

오픈런'으로 표현됐던 전남 동부권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025년에는 지역 소아과 의사와 협력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지정하고 순천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으로 더욱 촘촘한 진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또 여성아동병원과 협력해 고위험 신생아 안정적 이송 시스템을 마련했다.

순천시에는 24시간 응급분만이 가능한 2개의 여성아동병원이 있어 지방필수의료위기 속에서도 '분만뽕뽕이' 상황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산전진료와 분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위험신생아 전용 구급차'를 도입·운영한다.

고위험 및 응급 신생아 발생 시 긴급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용 구급차는 보건소 특수구급차 내에 이동형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신생아 전문 응급장비를 탑재하고 기능보강을 거쳐 2025년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천 달빛어린이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진료를 받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등증 이상의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진 대상 소아 진료 능력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의료뿐만 아니라 인구·경제·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의료계와 소통하며 지역을 살리는 의료정책을 펼칠 계획이다"며 "2025년에도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9300명 모집 여수시, 6일까지 방문 신청·접수

여수시는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9300명을 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738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705명 △공동체사업단 280명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100명 △시비 자체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835명이다.

신청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지역연금 수급자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지도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진단서 첨부 시 신청 가능하다.

사업유형별 근무 시간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30시간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근무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1일 최대 8시간, 시간당 임금은 9860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수행기관(9개소)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인정액, 보행 능력 및 의사소통 수준, 노인일자리 참여 경력 등 선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노인장애인과(061-659-3718)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하반기 장학금 251명 지급 보성군장학재단

보성군은 지난달 28일 (재)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문찬오)이 2024년 하반기 장학금 251명을 선발해 총 1억4859만원의 장학금 지급하고 제4회 장학생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은 △성적우수(96명) △보급자리(51명) △한울타리(49명) △행복동지(7명) △푸른꿈(3명) △특별지정장학금(김선광 장학금-보성중학교 25명, 선종철 장학금-삼광중학교 20명)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지급됐다.

시상식을 통해 마무리된 '제4회 장학생 수기 공모전'은 장학금을 통해 이룬 성취와 성장 이야기를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3명의 학생이 참여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은 △최우수상 1명(이현우, 상금 70만원) △우수상 2명(이광렬, 주소영, 각 50만원) △장려상 3명(김시현, 김정현, 백승혁, 각 30만원) △입상 17명(각 5만원)에게 상금과 함께 축하를 전했다.

수상작은 12월 발간될 장학회보에 수록돼 더 많은 학생들과 보성 군민들에게 영감을 줄 예정이다.

문찬오 (재)보성군장학재단 이사장은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지역 학생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순천시 남제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무연고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도배장판, 냉장고 등을 교체하고 대청소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순천시 남제동, 주거환경 개선 활동

순천시 남제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란)가 지난달 20부터 7일간에 걸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1일 순천시 남제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무연고 독거노인으로 가족의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도배와 장판은 곰팡이에 오염되어 찢어지고 싱크대는 부식되었으며 냉장고 고

장으로 음식을 보관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남제동은 마중물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와 협력해 도배장판, 싱크대, 냉장고, 전기장판 등을 교체하고 대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현정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낡고 지친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며 아낌없는 나눔봉사를 실천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봉사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미란 남제동장은 "살맛나는 남제동을 만드는 것은 각 기관단체의 작은 관심과 봉사에서 시작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현업 근로자 사업장 안전 점검 여수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여수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시 소속 현업 근로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 실태와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최정기 부시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은 안전·보건관리자와 지난 26일 재활용품선별장과 꽃옥묘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휴게시설 등 근로자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악취와 분진에 대비한 방진마스크와 넥워머, 핫팩 등을 지원했다.

최정기 부시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재적으로도 점검을 지속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장흥군, 제40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2관왕

### 미경산우·고급육 부문

장흥군은 최근 나주축협에서 열린 '제40회 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미경산우 부문과 고급육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전남 최고의 우량한우를 선발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암소 개량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 혈통 발굴로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도 22개 시군의 우량한우 99두가 출품된 가운데, 장흥군은 6개 부문에 우량한우 7두를 출품했다.

미경산우 부문에서 장평면 ㈜보우(대표 강성수) 농가가 최우수상을, 고급육 부문에서 대덕읍 김성남 농가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명성을 이어갔다.

미경산우 최우수를 차지한 ㈜보우 농가는 제21회 전국한우경진대회에 전남도 대표로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옥현 장흥군 축산과장은 "한우 개량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고급육 생산과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